

유란시아서

<< [제 69 편](#) | [부분](#) | [내용](#) | [제 71 편](#) >>

제 70 편

인간이 만든 정부의 진화

70:0.1 (783.1) 생계를 잇는 문제를 일부 풀자마자, 사람은 인간의 접촉을 규제하는 일에 부닥쳤다. 산업의 발달은 법과 질서와 사회적 조정을 요구했다. 사유 재산은 정부를 필요하게 만들었다.

70:0.2 (783.2) 진화 세계에서 적개심은 자연히 생기고, 오로지 사회를 규제하는 어떤 종류의 체계가 평화를 보장한다. 사회적 규제는 사회의 조직과 뗄 수 없고, 관계는 어떤 통제하는 권한이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부족 · 씨족 · 가족 · 개인 대립 관계의 조정을 강요한다.

70:0.3 (783.3) 정부는 의식하지 않고 발달한 것이요, 시행 착오로 진화한다. 정부는 살아남을 가치가 있고, 따라서 정부는 전통이 된다. 무정부는 비참을 더하고, 따라서, 정부, 곧 상대적 법과 질서는 천천히 태어났거나 태어나고 있다. 살기 위하여 투쟁해야 한다는 요구는 문명에 이르기까지 진보하는 길을 따라서 글자 그대로 인류를 몰았다.

1. 전쟁의 발생

70:1.1 (783.4) 전쟁은 진화하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상태요 물려 받은 유산이다. 평화는 문명이 진보한 정도를 재는, 사회의 척도이다. 진보하는 민족들이 어느 정도 교제하기 전에, 사람은 극도로 개인주의이고, 지나치게 의심이 많고, 믿을 수 없이 다투기를 좋아했다. 폭력은 자연의 법칙이요, 적의(敵意)는 자연인의 자동 반응이며, 한편 전쟁은 다만 바로 이 활동을 집단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명의 구조가 사회의 진보에 따르는 혼란에 시달릴 때는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인간의 상호 관계에서 생기는 염증을 폭력으로 해결하는 이 옛 방법으로, 즉각적인 파괴 성향으로 되돌아간다.

70:1.2 (783.5) 전쟁은 오해와 염증에 대하여 동물처럼 반응하는 것이다. 모든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의 문명화된 해결에 평화가 뒤따른다. 나중에 질이 나빠진 **아담** 족속과 **노트** 족속과 함께, **산직** 민족들은 모두 싸움을 좋아했다. **안돈** 족속은 일찍부터 황금률을 배웠으며, 오늘날도 그 **에스키모** 후손은 대체로 그 법을 따라 산다. 관습은 그들 사이에 확고하며, 그들에게는 사나운 대립 관계가 없는 편이다.

70:1.3 (783.6) **안돈**은 자식들에게, 각자가 나무를 저주하면서 막대기로 나무를 때림으로 말다툼 해결하는 것을 가르쳤다. 막대기를 먼저 부러뜨린 자가 이긴 사람이었다. 후일의 **안돈** 족속은 대중의 구경거리를 열어서 싸움을 해결하곤 했는데, 거기서 싸우는 자들이 서로 놀리고 비웃었고, 한편 청중은 박수로 이긴 자를 결정했다.

70:1.4 (783.7) 그러나 사회가 실제로 평화스러운 기간을 체험하고 전쟁 비슷한 연습을 인가할 만큼 충분히 진화하기까지, 전쟁과 같은 현상이 전혀 있을 수 없다. 전쟁한다는 바로 그 개념은 어느 정도의 조직이 있음을 의미한다.

70:1.5 (784.1) 사회 집단들이 생겨나자, 개인의 싸증은 집단의 감정 속에 파묻혀 사라지기 시작했고, 이것은 부족 안에서 평온을 증진했지만, 부족들 사이의 평화를 희생하였다. 이처럼 먼저 내부 집단, 곧 부족이 평화를 누렸고, 그들은 언제나 바깥 집단, 다른 부족 사람들을 싫어했다. 일찍부터 사람은 타지방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다.

70:1.6 (784.2) 그러나 이것도 처음에는 효과가 없었다. 오해를 해소하려고 애썼을 때, 초기의 족장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부족의 돌싸움을 허가하는 것이 필요함을 흔히 깨달았다. 그 씨족은 두 무리로 갈라져 하루 종일 싸움에 빠지곤 했다. 그리고 이것은 그저 재미로 하는 외에 아무런 다른 이유가 없었고, 그들은 정말로 싸움을 즐겼다.

70:1.7 (784.3) 전쟁이 지속하는 것은 사람이 동물에서 진화한 인간이기 때문이며, 동물은 다 싸움을 좋아한다. 초기에 전쟁의 원인은 다음과 같았다:

70:1.8 (784.4) 1. 배고픔은 식량을 얻기 위한 침공으로 이끌었다. 땅이 부족한 것은 언제나 전쟁을 불러 왔고, 이러한 투쟁에서 초기의 평화로운 부족들은 실질적으로 멸종했다.

70:1.9 (784.5) 2. 여자의 부족(不足) — 집안 일꾼이 모자라는 것을 해소하려는 시도. 여자를 훔치는 것은 반드시 전쟁을 일으켰다.

70:1.10 (784.6) 3. 허영심 — 부족의 용맹을 나타내려는 욕심. 우수한 집단은 그들의 생활 방식을 열등한 민족에게 강제하기 위하여 싸우려 한다.

70:1.11 (784.7) 4. 노예 — 노동 계급이 될 새 일꾼을 모집할 필요.

70:1.12 (784.8) 5. 복수는 이웃 부족이 동료 부족 사람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믿었을 때, 전쟁의 동기가 되었다. 애도(哀悼)는 머리 하나를 집으로 가져올 때까지 계속되었다. 복수(復讐)하는 전쟁은 근대에 바로 이르기까지 좋은 평가를 받았다.

70:1.13 (784.9) 6. 오락 — 이 초기 시절에 젊은 남자들은 전쟁을 오락으로 보았다. 전쟁을 위하여 좋은 충분한 핑계가 생기지 않으면, 평화가 답답할 때, 가까이 있는 부족들은, 노는 날로, 거짓 싸움을 즐기기 위해서, 약탈에 참가하려고 반(半) 우호적 전쟁에 나가는 습관이 있었다.

70:1.14 (784.10) 7. 종교 — 종파로 전향하는 자들을 얻으려는 욕심. 원시 종교들은 모두 전쟁을 인가했다. 겨우 요즈음에 와서야 종교는 전쟁을 못 마땅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초기의 사제들은, 유감스럽게도 보통, 군사력과 손을 잡았다. 오랜 세월 동안에 큰 평화 운동 중의 하나는 교회와 국가를 분리하려는 시도였다.

70:1.15 (784.11) 이 옛 부족들은 언제나 부족 신의 명령을 받고서, 추장이나 주술사의 요청을 받고서, 전쟁을 일으켰다. **히브리인**은 그러한 “전투의 **하나님**”을 믿었고, 그들이 **미디안** 족속을 침공한 이야기는 옛날에 부족 전쟁에서 일어난 잔학 행위의 전형적 이야기이다. 모든 남자를 도살하고 나중에는 모든 남자 아이와 처녀가 아닌 모든 여자를 죽인 이 침공은 20만 년 전에 한 부족 추장의 관습에 경의를 표했을 것이다. 이 모두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76] 행해졌다.

70:1.16 (784.12) 이것은 사회의 진화 — 종족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 이야기, 사람이 땅에서 자신의 운명을 해결해 나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러한 잔학 행위는, 사람이 그 책임을 신들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신이 부추긴 것이 아니다.

70:1.17 (784.13) 군사적(軍事的) 자비는 인류를 더디게 찾아왔다. 한 여자 **데보라**가 **히브리인**을 통치했을 때에도, 바로 이 대규모의 잔학 행위가 계속되었다. 그 여자의 장군이 이방인에게 승리했을 때 “모든 무리가 칼날에 이슬이 되게” 만들었고, “하나도 남지 않았다.”

70:1.18 (785.1) 아주 일찍부터 민족의 역사에서, 독이 있는 무기(武器)가 쓰였다. 온갖 종류의 몸 부분 자르기가 실행되었다. **사울**은 자기 딸 **미갈**을 위해서 내야 할 지참금으로, **다윗**에게 **필리스티아인** 1백 명의 포피(包皮)를 서슴지 않고 요구했다.

70:1.19 (785.2) 초기의 전쟁에는 부족 전체가 싸웠으나, 후일에는 서로 다른 부족에 속한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두 부족이 싸우는 대신에, 그 두 사람만 결투에 들어갔다. **다윗**과 **골리앗**의 경우에서 보다시피, 두 군대가 각 편에서 뽑은 대표 사이의 싸움 결과에 모두를 거는 것이 또한 관습이 되었다.

70:1.20 (785.3) 전쟁이 처음으로 개선된 것은 포로를 잡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여자는 전투 행위에서 제외되었고, 다음에 뒤이어 비전투원을 인정하게 되었다. 전투가 더욱 복잡하게 되는 것과 발을 맞추어 군대 계급과 상비군이 곧 개발되었다. 그러한 용사들은 여자와 교제하는 것이 일찍부터 금지되었고, 여자들은 오래 전에 싸움을 그만두었다. 하지만 여자들은 언제나 군인들을 먹이고 돌보았으며, 그들이 싸우도록 계속 격려했다.

70:1.21 (785.4) 전쟁을 선언하는 관습은 큰 진보이다. 싸우겠다는 의사(意思)를 그렇게 선언하는 것은 공정 감각이 도래했음을 가리키며, 뒤이어 “문명화된” 전쟁 규칙이 차츰 발전되었다. 아주 일찍부터 종교적인 장소 가까이에서, 나중에는 어떤 거룩한 날에 싸우지 않는 것이 관습이 되었다. 다음에는 피난처의 권리를 공인하는 일이 따랐으며, 정치적 망명자는 보호를 받았다.

70:1.22 (785.5) 이렇게 전쟁은 원시적인 사람 사냥으로 시작하여 후일에 “문명화된” 국가들의 얼마큼 질서 있는 체계로 차츰 발전했다. 그러나 사회의 우호적 태도는 적대하는 태도를 천천히 바꿀 뿐이다.

2. 전쟁의 사회적 가치

70:2.1 (785.6) 지나간 시대에 격심한 전쟁은, 1만 년 동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을 그러한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고 새로운 생각을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들곤 하였다. 전쟁으로 생기는 이러한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끔찍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사회가 일시 야만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었다. 문명화된 논리는 물러나야 했다. 전쟁은 효력이 센 약이요, 아주 비싸고 몹시 위험하다. 어떤 사회적 질병을 가끔 고치지만, 전쟁은 때때로 환자를 죽이고 사회를 파괴한다.

70:2.2 (785.7) 상존하는 국가 방어의 필요성은 사회에서 새롭고 진보된 많은 조정을 일으킨다. 오늘날의 사회는 허다한 유익한 기술 혁신의 이익을 누리는데, 이것들은 처음에 전적으로 군사(軍事) 목적이었고, 춤은 전쟁의 덕으로 비롯되었으며, 춤은 초기 형태의 군사 훈련의 하나였다.

70:2.3 (785.8) 전쟁은 지난날의 문명에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전쟁이:

- 70:2.4 (785.9) 1. 훈련, 곧 강제된 협동을 부과했다.
- 70:2.5 (785.10) 2. 사람들이 인내와 용기를 소중히 여기게 만들었다.
- 70:2.6 (785.11) 3. 민족주의를 육성하고 자리잡게 만들었다.
- 70:2.7 (785.12) 4. 약하고 부적당한 민족들을 멸망시켰다.
- 70:2.8 (785.13) 5. 원시적 평등의 망상을 없애고 선택해서 계층 있는 사회를 만들었다.

70:2.9 (785.14) 전쟁은 어떤 진화적 가치와 사람을 선택하는 가치가 있지만, 노예 제도와 마찬가지로, 문명이 천천히 진보함에 따라서 언젠가 전쟁을 버려야 한다. 옛날의 전쟁은 여행과 문화의 교류를 촉진했는데, 이런 목표는 현대의 수송과 통신 방법으로 지금 더 쉽게 달성된다. 옛날의 전쟁은 국가를 강화했지만, 현대의 전투는 문명 세계의 문화를 뒤집어 었는다. 고대의 전쟁은 열등한 종족의 학살을 초래했다. 현대 전투의 최종 결과는 가장 훌륭한 인간 혈통을 골라서 파괴하는 것이다. 초기의 전쟁은 조직과 효율성을 촉진했지만, 이것은 이제 현대 산업의 목표가 되었다. 지난 시대에 전쟁은 문명을 앞으로 나아가게 한 사회적 효소(酵素)였다. 지금은 포부와 발명이 이 결과를 더 낮게 달성한다. 고대의 전쟁은 전투하는 **하나님** 개념을 지지했지만, 현대인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을 들었다. 지난날에는 전쟁이 많은 가치 있는 목적에 소용이 되었고, 문명을 세우는 데 필수 발판이었지만, 전쟁은 급속히 문화에 손해가 되고 있다 —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데 따르는 끔찍한 손해에 비례해서 어떤 면으로도 사회에 이익을 배당할 수 없다.

70:2.10 (786.1) 한때 의사들은 방혈(防血)이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한다고 믿었지만, 의사들은 그 뒤로 이러한 질병의 대부분에 더 좋은 처방을 발견했다. 그래서 전쟁이 낳는 국제적 유혈(流血)은 분명히, 국가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더 좋은 방법을 발견하도록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

70:2.11 (786.2) **유란시아**의 나라들은 민족적 군사주의와 산업주의 사이에 벌어지는 거대한 싸움에 이미 들어갔고, 여러 면에서 이 투쟁은 목자인 사냥꾼과 농부 사이에 오랜 세월에 걸쳤던 투쟁과 비슷하다. 그러나 산업주의가 군사주의를 이기려면, 산업주의에 따르는 위험을 피해야 한다. **유란시아**에서 싹트는 산업의 위험은 다음과 같다:

70:2.12 (786.3) 1. 물질주의, 곧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로 강하게 흘러가는 경향.

70:2.13 (786.4) 2. 부와 권력의 숭배, 가치의 왜곡.

70:2.14 (786.5) 3. 사치의 악덕, 문화적 미숙.

70:2.15 (786.6) 4. 게으름, 봉사에 무감각한 것, 이 두 가지 위험이 커진다.

70:2.16 (786.7) 5. 바람직하지 않게 종족이 연약해지는 것, 생물학상의 악화.

70:2.17 (786.8) 6. 표준화된 산업에 노예가 되는 위협, 인격이 성장하지 않는 것. 노동은 사람을 고상하게 만들지만, 고역은 감각을 마비시킨다.

70:2.18 (786.9) 군사주의는 독재이며 잔인하다 — 야만스럽다. 정복자들 사이에서 사회 조직을 촉진하지만, 정복당한 자를 무너뜨린다. 산업주의가 더 문명화된 것이며, 창의성을 촉진하고 개성을 북돋아주도록, 산업주의를 실천해야 한다. 사회는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창의성을 길러주어야 한다.

70:2.19 (786.10) 전쟁을 영화롭게 기리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 오히려 문명의 진보를 계속하기 위해서 전쟁의 대용품이 무엇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가 더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전쟁이 사회에 무슨 이익을 가져왔는가 헤아려 보아라. 그러한 적당한 대용품을 마련하지 않으면, 전쟁이 오랫동안 계속될 것을 너희는 확신해도 좋다.

70:2.20 (786.11) 평화가 사람의 물질적 복지에 최선이라는 것을 속속들이 거듭하여 사람이 확신하기까지, 그리고 인류의 자아 보존 반응에 속하는, 늘 쌓이는 감정과 에너지를 방출하도록 예정된 집단 욕구를 이따금 해소하는 타고난 성향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회가 평화적 대용품을 지혜롭게 마련할 때까지, 사람은 결코 평화를 정상 생활의 형태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70:2.21 (786.12) 그러나 지나는 길에 덧붙인다면, 전쟁을 체험의 학교로 존중해야 하며, 이 학교는 거만한 개인주의자로 이루어진 민족을 상당히 집중된 권한 — 최고 집행자 — 에게 복종하도록 강요했다. 옛날 방식의 전쟁은 선천적으로 위대한 사람을 지도자로 뽑았지만, 현대의 전쟁은 이제 더 이렇게 하지 않는다. 지도자를 찾으려면, 사회는 이제 평화를 정복하는 일, 곧 산업 · 과학, 그리고 사회적 성취에 눈을 돌려야 한다.

3. 초기의 인간 관계

70:3.1 (787.1) 가장 원시적 사회에서는 집단이 전부이다. 아이들조차 집단의 공동 재산이다. 진화하는 가족은 아이를 기르는 일에 집단을 대체하였고, 한편 생겨나는 씨족과 부족들은 사회 단위로서 가족을 대신했다.

70:3.2 (787.2) 성욕과 모성애는 가족을 일으킨다. 그러나 가족을 초월하는 집단들이 비로소 형성되기까지 진짜 정부는 나타나지 않는다. 집단이 가족을 가지기 이전 시절에, 비공식으로 뽑은 개인들이 지도자가 되었다. **아프리카의 부시맨**은 결코 이 원시 단계를 넘어서 진보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무리 안에 우두머리가 없다.

70:3.3 (787.3) 가족들은 씨족, 곧 친척 집합의 혈연으로 뭉치게 되었다. 씨족들은 나중에 부족, 곧 영토를 가진 공동체로 진화하였다. 전쟁과 외부의 압력은 인척 관계를 가진 씨족들에게 부족을 조직하도록 강요했지만, 어느 정도 내부의 평화로 이 초기의 원시 집단들을 결속한 것은 상업과 무역이었다.

70:3.4 (787.4) 환상적 평화를 계획하는, 감상에 젖은 어떤 궤변보다, 국제 무역(貿易) 조직이 **유란시아**의 평화를 훨씬 더 증진할 것이다. 언어의 발달이, 그리고 개량된 수송뿐 아니라 통신 방법이, 무역 관계를 수월하게 만들었다.

70:3.5 (787.5) 공통된 언어의 부재(不在)는 언제나 평화 집단의 성장을 막았지만, 돈은 현대 무역에서 보편적 언어가 되어버렸다. 대체로, 산업 시장이 현대 사회를 결속한다. 이익의 동기는 봉사하려는 욕구로 커졌을 때, 사람을 문명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이다.

70:3.6 (787.6) 초기 시대에 각 부족은 바깥으로 나가면서 두려움과 의심이 증가하는 그러한 여러 동심원(同心圓)에 둘러싸여 있었다. 따라서, 한때는 낯선 사람을 모두 죽이는 것, 나중에는 그들을 종으로 만드는 것이 관습이었다. 옛날의 친교 관념은 씨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했으며, 씨족의 회원 자격은 죽은 뒤에도 계속된다고
생각되었다 — 이것은 가장 초기의 영생 개념의 하나이다.

70:3.7 (787.7) 부족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의식(儀式)은 서로의 피를
마시는 것이었다. 어떤 집단에서는 피를 마시는 대신에 침을
교환하였고, 이것이 사교에서 입맞추는 관습의 옛 기원이다. 그리고
관계를 맺는 모든 의식은, 결혼이든 입족 예식이든, 언제나 잔치를
벌임으로 끝났다.

70:3.8 (787.8) 후일에는 붉은 포도주로 뭍게 만든 피가 쓰였고, 결국에는
오직 포도주를 입족 의식을 봉인하려고 마셨는데, 이 의식은 포도주
잔을 스침으로 표시했고, 마실 것을 삼키고서 끝났다. **히브리인**은 이
입족 의식을 고쳐서 실행하였다. 그들의 **아랍** 조상은 서약을
이용했는데, 서약은 후보자의 손이 부족 원주민의 생식기에 놓인 동안
실시되었다. **히브리인**은 받아들인 외국인을 친절하게, 형제처럼
다루었다. “너희와 함께 거하는 외국인은 너희 사이에 태어난 자와
같이 될지니, 너희는 그를 네 몸처럼 사랑할지니라.”

70:3.9 (787.9) “손님 자격의 친교”는 임시 친교 관계였다. 방문하는
손님이 떠날 때, 접시를 반쪽으로 깨뜨리고 한 조각을 떠나는 친구에게
주었고, 그것은 나중에 방문하려고 도착할지 모르는 제삼자를 위하여
적당한 소개장으로 쓰이곤 하였다. 손님들은 자기의 여행과 모험에
관하여 이야기함으로 방문에 대하여 보답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옛날의 이야기꾼들은 아주 인기가 좋아서, 결국 관습은 사냥하거나
수확하는 철 동안에 이야기꾼의 활동을 금지하였다.

70:3.10 (788.1) 첫 평화 조약은 “피의 유대”였다. 싸우는 두 부족을
대표하는 평화 대사(大使)들이 만나서, 경의를 표하고, 다음에
나아가서 살갓에서 피가 날 때까지 찌르곤 했다. 다음에 그들은 서로의
피를 빨아먹고 평화를 선언하곤 했다.

70:3.11 (788.2) 가장 일찍 있었던 평화 사절단은 옛날 적들의 성욕(性慾)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가장 예쁜 자기네 처녀들을 데려오는 남자들의 대표단이었는데, 성욕이 전쟁 요구를 물리치는 데 이용된 것이다. 그렇게 명예를 받은 부족은 자체가 바치는 처녀들을 데리고, 답례 방문을 하곤 했다. 그때 평화가 정착된 것이다. 그리고 추장들의 가족 사이에서 서로 결혼하는 것이 인가되었다.

4. 씨족과 부족

70:4.1 (788.3) 첫 평화 집단은 가족이었고, 다음에는 씨족·부족, 나중에는 민족이었으며, 민족은 결국 영토를 가진 현대 국가가 되었다. **유란시아**의 나라들이 아직도 전쟁 준비에 막대한 돈을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도, 오늘날의 평화 집단들이 혈연을 넘어서 국가들을 포함한 지 오래 되었다는 사실은 아주 격려가 된다.

70:4.2 (788.4) 씨족은 부족 안에서 혈연을 가진 집단이며, 그들의 존재는 다음과 같은 어떤 공통된 이익에 빛을 지고 있다:

- 70:4.3 (788.5) 1. 공통된 조상까지 기원이 거슬러 올라간다.
- 70:4.4 (788.6) 2. 공통된 종교 토템에 충성한다.
- 70:4.5 (788.7) 3. 같은 지방 사투리를 말한다.
- 70:4.6 (788.8) 4. 공통된 거처를 함께 쓴다.
- 70:4.7 (788.9) 5. 같은 적을 무서워한다.
- 70:4.8 (788.10) 6. 공통된 군사 체험을 가진다.

70:4.9 (788.11) 씨족의 수령들은 반드시 부족 추장에게 종속되었고, 초기의 부족 정부는 씨족들의 허술한 연합이었다. **오스트랄리아** 원주민은 결코 부족 형태의 정부를 개발하지 못했다.

70:4.10 (788.12) 씨족의 평화시 추장은 보통 모계(母系)를 통해서 다스렸다. 부족의 전시(戰時) 추장은 부계를 확립했다. 부족 추장 및 초기 임금의 법정은 씨족의 수령들로 구성되었고, 그들을 임금 앞으로 1년에 몇 번씩 초대하는 것이 풍습이었다. 이것은 임금으로 하여금 그들을 지켜보고 그들의 협조를 더 단단히 확보하게 만들었다. 씨족들은 지역의 자치 정부에서 값진 목적에 쓰였지만, 크고 강한 국가의 성장을 아주 더디게 만들었다.

5. 정부의 시작

70:5.1 (788.13) 인간의 모든 제도는 시작이 있었고, 결혼 · 산업 · 종교와 꼭 마찬가지로, 국가의 정부는 점진적 진화의 산물이다. 초기의 씨족과 원시 부족들로부터, 연속되는 체제의 인간 정부가 차츰 개발되었고, 20세기에 둘째 3분의 1의 특징을 나타내는 그러한 형태의 사회 및 시민 규제에 바로 이르기까지, 이러한 체제들은 생겼다가 없어졌다.

70:5.2 (788.14) 가족 단위가 차츰 나타나자, 씨족 조직에서, 같은 피를 가진 가족들의 집합에서, 정부의 기초가 세워졌다. 진짜 정부 단체의 처음은 장로 회의였다. 이런 규제하는 집단은 어떤 유능한 방법으로 탁월함을 보인 노인들로 구성되었다. 야만인도 지혜와 경험을 존중하였고, 장로들이 지배하는 오랜 세월이 뒤따랐다. 나이 든 소수가 이렇게 독재하는 통치는 차츰 족장의 관념으로 발전했다.

70:5.3 (789.1) 초기의 장로 회의에는 모든 정부 기능, 곧 행정 · 입법 · 사법 기능의 잠재성이 존재했다. 당대의 관습을 풀이했을 때, 그 회의는 법정이었다. 새로운 양식의 사회 관습을 세울 때는 입법 기관이었고, 그러한 선포와 법령이 집행되는 한도까지, 그것은 행정부였다. 그 회의의 의장은 나중에 부족 우두머리의 선구자 중에 하나였다.

70:5.4 (789.2) 어떤 부족에는 여인 회의가 있었고, 때때로 많은 부족이 여인 통치자를 가졌다. 홍인의 어떤 부족들은 “7인 회의”의 만장일치 통치를 따르는 면에서 **오나모나론톤**의 가르침을 보존했다.

70:5.5 (789.3) 다투는 사회가 평화나 전쟁을 경영할 수 없다는 것을 인류가 깨닫기는 어려웠다. 원시의 “교섭”은 유익한 일이 드물었다. 여러 씨족의 수령들이 명령하는 군대는 한 사람이 지휘하는 강한 군대에 맞서서 승산이 없다는 것을 종족은 일찍부터 배웠다. 전쟁은 반드시 임금을 만들었다.

70:5.6 (789.4) 처음에 전쟁 추장은 군사 근무에만 뿔혔고, 평화시에는 그 권한의 얼마를 포기하곤 했는데, 이때 추장의 임무는 사회적 성질을 더 띠었다. 그러나 차츰차츰 그들은 평화 기간을 잠식하기 시작했고, 한 전쟁에서 다음 전쟁이 있기까지 내내, 계속하여 다스리는 경향이 있었다. 그들은 흔히 한 전쟁이 끝나고 다음 전쟁이 생기는 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도록 처리하였다. 이 초기의 전쟁 군주들은 평화를 좋아하지 않았다.

70:5.7 (789.5) 후일에 어떤 추장들은 군대 근무가 아닌 일 때문에 선출되었고, 특별한 체격이나 뛰어난 개인 능력 때문에 뽑혔다. 홍인은 흔히 두 별의 추장 — 총재, 곧 평화시 추장, 그리고 상속되는

전쟁 추장 — 이 있었다. 평화시의 통치자는 또한 판관이요 선생이었다.

70:5.8 (789.6) 주술사가 어떤 초기의 공동체를 다스렸고, 그들은 흔히 추장으로서 행동했다. 한 사람이 사제, 의원, 최고 집행자로서 행동하곤 했다. 아주 흔히, 초기의 왕의 문장(紋章)은 최초로 사제의 옷의 표시나 상징이었다.

70:5.9 (789.7) 이런 단계를 걸쳐서 정부의 집행부가 차츰 생기게 되었다. 씨족 및 부족 회의는 자문하는 기능을 가지고, 또 나중에 나타나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선구자로서, 계속하였다. **아프리카**에는 오늘날 이 모든 형태의 원시 정부가 여러 부족 사이에서 실제로 존재한다.

6. 군주제 정부

70:6.1 (789.8) 완전한 집행 권한을 가진 추장이 나타난 뒤에야 효과적인 국가 통치가 다가왔다. 한 인물에게 관념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권한을 줌으로써 효과적 정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사람은 발견했다.

70:6.2 (789.9) 통치권은 가족의 권한이나 재산 관념에서 생겨났다. 족장인 소왕(小王)이 정말로 임금이 되었을 때, 그를 때때로 “민족의 아버지”라고 불렀다. 나중에, 임금은 영웅으로부터 솟아나왔다고 생각되었다. 세월이 더 지나서, 왕이 신성한 기원을 가졌다는 믿음 때문에, 통치권이 상속되었다.

70:6.3 (789.10) 세습(世襲)하는 왕권은 이전에 임금이 죽고 후계자가 선출되는 사이에, 대혼란을 일으켰던 무정부 상태를 피했다. 가족은 생물학상의 우두머리가 있고, 씨족은 자연히 선택된 지도자가 있었다.

부족과 나중에 생긴 국가는 자연스런 지도자가 없었다. 이것은 추장이나 왕의 자리를 물려주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였다. 왕의 가족과 귀족 제도의 관념은 또한 씨족이 “이름 소유권”을 가지는 관습에 기초를 두었다.

70:6.4 (790.1) 왕의 계승은 결국 초자연의 일로 간주되었고, 왕족의 피는 **칼리가스티아 영주**의 육체화된 참모진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처럼 왕은 주물 인격자가 되었고 사람들은 터무니없이 왕을 무서워하게 되었으며, 특별한 형태의 대화를 궁정에서 쓰도록 채택하였다. 요즈음에도 왕의 손길은 병을 고친다고 생각되었고, 어떤 **유란시아** 민족들은 아직도 그들의 통치자가 신에게서 기원을 가졌다고 여긴다.

70:6.5 (790.2) 초기의 주물 임금은 흔히 은둔 속에 두었다. 그는 너무나 신성해서 잔칫날과 휴일을 빼고는 사람들이 볼 수 없다고 여겼다. 보통 한 대표가 그를 흉내 내도록 선택되었고, 이것이 수상(首相)의 기원이다. 첫 내각의 관리는 식량 관리자였고, 다른 사람들이 곧 뒤를 이었다. 통치자들은 이내 상업과 종교를 책임지는 대표들을 지명했다. 내각의 발전은 집행 권한을 개인적이 아닌 것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직접 내디딘 걸음이었다. 초기 임금의 이러한 조수들은 인정 받는 귀족이 되었고, 여자들이 전보다 더 존경 받게 되자, 왕의 아내는 차츰 왕비의 위엄으로 올라갔다.

70:6.6 (790.3) 양심 없는 통치자들은 독을 발견함으로 큰 권력을 쥐었다. 일찍부터 궁중의 요술은 악마처럼 잔학했다. 임금의 적들은 금방 죽었다. 그러나 아주 잔학한 폭군도 얼마큼 제한을 받았다. 그는 늘 암살당하는 두려움 때문에 적어도 자제하였다. 주술사·마술사·사제는 언제나 임금에게 강력한 저지 세력이었다. 나중에는, 지주(地主), 곧 귀족들이 제어하는 영향력을 미쳤다. 그리고

때때로 씨족과 부족들이 그저 들고 일어나서, 전제 군주와 폭군을 뒤집어엎었다. 폐위된 통치자는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흔히 자살하는 선택권이 주어졌는데, 이것은 어떤 환경에서 자살하는, 고대 사회의 유행을 낳았다.

7. 원시의 클럽과 비밀 사회

70:7.1 (790.4) 혈연 관계는 처음 사회 집단들을 결정했고, 인간 관계는 친척인 씨족을 확대했다. 서로 결혼하는 것은 집단을 확대하는 다음 걸음이었고, 그에 따라 생긴 복잡한 부족은 처음으로 참된 정치 단체였다. 사회의 발전에서 다음의 진보는 종교적 종파와 정치 클럽의 진화였다. 이것들은 처음에 비밀 사회로서 나타났고, 최초에는 온전히 종교적이었는데, 나중에는 행동을 규제하였다. 처음에 이러한 비밀 사회는 남자들의 클럽이었고, 나중에 여자들의 클럽이 나타났다. 이내 클럽은 두 등급, 사회·정치적 등급과 종교적이고 신비스러운 등급으로 나누어졌다.

70:7.2 (790.5) 이 사회들이 비밀을 지키는 데는 많은 까닭이 있었는데 다음과 같다:

70:7.3 (790.6) 1. 어떤 금기를 위반하는 것 때문에 통치자의 비위를 건드리는 두려움.

70:7.4 (790.7) 2. 소수의 종교 의식(儀式)을 거행하기 위해서.

70:7.5 (790.8) 3. 가치 있는 “정신”이나 상업 비밀을 보존하려는 목적으로.

70:7.6 (790.9)

4. 어떤 특별한 마력이나 요술을 즐기기 위해서.

70:7.7 (790.10)

이 사회들이 지키는 바로 그 비밀은 모든 회원에게, 나머지 부족 사람에게 대해서 신비의 힘을 주었다. 비밀은 또한 허영심에도 호소한다. 가입한 자들은 당대에 사회에서 귀족이었다. 남자 아이는 전에 여자와 함께 채소를 거두었는데, 입회식이 있는 뒤에는 어른들과 함께 사냥했다. 사춘기 시험에 미끄러져, 남자들의 거쳐 바깥에서 강제로 여자와 아이들과 함께 남아 있는 것, 여자처럼 여겨지는 것은 최고의 치욕이요, 부족에서 불명예였다. 게다가, 가입하지 않은 자들은 결혼이 허락되지 않았다.

70:7.8 (791.1)

원시 인간은 아주 일찍부터 사춘기 청년들에게 성욕의 자제를 가르쳤다. 사춘기부터 결혼하기까지 소년들을 부모로부터 떼어내는 것이 관습이 되었고, 소년의 교육과 훈련은 남자들의 비밀 사회에 맡겼다. 이러한 클럽의 주요 활동 가운데 하나는 사춘기의 청년들을 통제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사생아가 생기는 것을 막았다.

70:7.9 (791.2)

이 남자의 클럽이 다른 부족에서 온 여자를 사용하는 데 돈을 치렀을 때, 상업화된 매춘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초기의 집단들은 놀랍게도 성의 문란에 빠지지 않았다.

70:7.10 (791.3)

사춘기에 입문하는 의식(儀式)은 보통 5년의 기간에 연장되었다. 많은 고행 및 아픈 절단이 이 의식에 들어갔다. 할례가 이런 비밀 사회 중 하나에 입회 의식으로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사춘기 입문의 일부로서 부족의 표시를 몸에 새겼다. 문신(文身)은 그러한 부족원의 표징으로서 시작되었다. 그러한 고문은, 상당한 고난과 함께, 이 젊은이들을 강하게 단련시켰고, 생명의 현실과 그에 따른 불가피한 시련으로 그들에게 감명을 주도록 고안되었다. 나중에 나타나는 운동 시합과 육체적 경기가 이 목적을 더 잘 수행한다.

70:7.11 (791.4) 그러나 비밀 사회들은 사춘기의 도덕성을 개량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사춘기 예식의 주요한 목적의 한 가지는 소년에게 다른 남자의 아내를 가까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었다.

70:7.12 (791.5) 험한 단련과 훈련을 이렇게 몇 년 동안 거친 다음, 결혼하기 바로 전에, 이 젊은 남자들은 보통, 여가와 자유를 가지도록 잠시 동안 풀려났고, 그 뒤에 돌아와서 결혼하고 부족의 금기에 일생 동안 복종하였다. 그리고 이 고대의 관습은 “젊어서 난봉을 피우는” 어리석은 관념으로서 현대까지 계속되었다.

70:7.13 (791.6) 후일에 많은 부족이 여자들의 비밀 클럽을 만드는 것을 인가했는데, 그 목적은 사춘기의 소녀들을 아내와 어머니가 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었다. 입회한 다음에 소녀는 결혼할 자격이 있었고 “신부 보이기”에 나가는 것이 허락되었는데, 이것은 그 시절에 사회에 처음으로 발을 내딛는 모임이었다. 결혼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여자들의 계급은 일찍부터 생겼다.

70:7.14 (791.7) 결혼하지 않은 남자의 집단과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은 여자의 집단이 따로 조직되었을 때, 당장에 비밀 아닌 클럽들이 등장했다. 이 사회들은 정말로 처음 학교였다. 남자의 클럽과 여자의 클럽은 서로를 괴롭히는 경향에 흔히 빠졌지만, 어떤 진보된 부족들은 **달라마시아** 선생들과 접촉을 가진 뒤에, 남녀 공학(共學)을 실험했고, 남녀 모두를 위하여 기숙사가 있는 학교를 가지고 있었다.

70:7.15 (791.8) 비밀 사회들은 주로 그 입회식의 신비스러운 특징으로 말미암아, 사회 계층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이 사회의 회원들은 애도하는 의식 — 조상 숭배 — 에서 호기심 있는 자를 놀라게 해서 쫓아내려고 처음으로 가면을 썼다. 나중에 이 의식은 가짜 강령회(降靈會)로 발전되었고, 거기서 귀신이 나타났다고 소문이 났다.

“새로이 탄생”한 고대의 사회들은 신호를 썼고, 특별한 비밀 은어(隱語)를 이용했다. 또한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맹세했다. 그들은 밤의 경찰로서 행동했고, 그 밖에도 넓은 범위의 사회 활동 분야에서 일했다.

70:7.16 (792.1) 모든 비밀 결사는 선서를 부과하고 신뢰를 강요했으며, 비밀을 지키라고 가르쳤다. 이런 명령은 폭도에게 두려움을 주고 폭도를 통제했다. 그들은 또한 경계를 맡는 사회 단체로서 행동했으며, 따라서 사형(私刑) 법을 실천했다. 이들은 부족들이 전쟁할 때 첫 간첩이었고, 평화 시절에는 첫 비밀 경찰이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양심 없는 왕이 바늘방석에 앉게 만들었다. 그들을 상쇄하기 위해서, 왕들은 자체의 비밀 경찰을 길렀다.

70:7.17 (792.2) 이러한 사회 단체는 처음으로 정당을 낳았다. 처음 정당 정치는 “강한 자” 대 “약한 자”였다. 옛날에는 내란이 있는 다음에야 행정부가 갈렸는데, 이것은 약한 자가 강해졌다는 것을 풍부히 증명한다.

70:7.18 (792.3) 이 클럽들은 빌려준 돈을 걷기 위하여 상인에게 고용되었고, 세금을 걷기 위해서 통치자에게 고용되었다. 세금 걷는 것은 오랜 투쟁이었는데, 가장 이른 형태 중의 하나는 십일조, 곧 사냥이나 전리품의 10분의 1이었다. 세금은 최초로 왕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과되었지만, 성전 예배를 지원하는 헌금으로 변장했을 때 세금 걷기가 더 쉽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70:7.19 (792.4) 이윽고 이 비밀 결사(結社)들은 첫 자선 조직으로 성장했고, 나중에는 초기의 종교 단체 — 교회의 선구자 — 로 진화했다. 마침내 이 사회들 중에 더러는 부족간의 사회, 곧 첫 국제 단체가 되었다.

8. 사회 계급

70:8.1 (792.5) 인간의 정신·육체의 불평등은 사회 계급이 나타날 것을 보장한다. 사회 계층이 없는 유일한 세계는 가장 원시적 세계와 가장 진보된 세계이다. 새로 시작되는 문명은 아직 사회적 수준의 차별을 시작하지 않았고, 한편 빛과 생명 속에 안정된 세계는 이러한 인류의 구분을 대체로 지워버렸으며, 이러한 구분은 중간에 있는 모든 진화 단계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

70:8.2 (792.6) 사회가 야만 상태에서 미개(未開) 상태로 솟아오름에 따라서, 그 인간 구성원은 다음의 일반적 이유 때문에, 여러 등급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다:

70:8.3 (792.7) 1. 자연스런 이유 — 접촉, 친척 관계, 결혼. 처음 사회적 구별은 남녀·나이·혈연 — 추장과 무슨 인척 관계인가 — 에 기초를 두었다.

70:8.4 (792.8) 2. 개인적 이유 — 능력과 끈기와 기술, 그리고 불굴의 정신을 인정하는 것. 언어의 능숙, 지식, 일반적 지능의 인정이 곧 뒤따랐다.

70:8.5 (792.9) 3. 우연 — 전쟁과 이민은 인간 집단을 분리하였다. 계급의 진화는 정복에, 승자와 피정복자의 관계에 강하게 영향을 받았고, 한편 노예 제도는 자유로운 자와 매인 자로, 처음으로 일반적 사회의 구분(區分)을 가져왔다.

70:8.6 (792.10) 4. 경제적 이유 — 빈부(貧富). 재산, 그리고 노예의 소유는 한 사회 계급의 유전적 기초가 되었다.

70:8.7 (792.11) 5. 지리적 이유 — 도시나 시골의 촌락이 생기자 그에 따라서 계급이 생겨났다. 도시와 시골은 각자가 목자나 농부, 그리고 상인이나 산업가로 전문화되는 데 기여했으며, 그들의 관점과 반응은 달랐다.

70:8.8 (792.12) 6. 사회적 이유 — 다른 여러 집단의 사회적 가치를 대중이 추정하는 데 따라서 계급이 차츰 형성되었다. 가장 일찍부터 생긴 이 종류의 구분에는 사제와 선생, 통치자와 무사(武士), 자본가와 상인, 보통 노동자와 노예가 있었다. 노예는 결코 자본가가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임금 받는 자는 때때로 자본가의 서열에 끼 수 있었다.

70:8.9 (793.1) 7. 직업적 이유 — 직종이 늘어나자, 그들은 계급과 조합을 세우는 경향이 있었다. 노동자는 세 집단으로 나뉘었는데, 곧 주술사를 포함한 전문가 계급, 다음에 기술 노동자, 미숙련 노동자가 뒤따랐다.

70:8.10 (793.2) 8. 종교적 이유 — 초기의 종파 클럽은 씨족과 부족 안에서 자체의 계급을 만들었고, 사제들의 경건함과 신비스러움은 그들이 따로 된 사회 집단으로 오랫동안 지속하게 만들었다.

70:8.11 (793.3) 9. 종족의 이유 — 일정한 국가나 영토 단위 안에 둘 이상의 종족이 존재하는 것은 보통 피부색에 따른 카스트를 만들어낸다. 인도 최초의 카스트 제도는, 초기 **에집트**의 카스트와 마찬가지로, 피부색에 기초를 두었다.

70:8.12 (793.4) 10. 나이 — 청춘기와 성년기. 부족 사이에서 소년은 아버지가 사는 한, 아버지의 보호 밑에 남아 있었고, 한편 소녀는 결혼할 때까지 어머니의 보살핌에 맡겨졌다.

70:8.13 (793.5) 융통성 있고 변하는 사회 계급은 진화하는 문명에 필수이지만, 계급이 카스트가 될 때, 사회 수준이 굳어질 때, 사회의 안정은 개인의 창의성을 줄임으로 향상된다. 사회적 카스트는 산업에서 한 사람의 자리를 찾는 문제를 풀지만, 또한 개인의 발전을 뚜렷이 단축시키고 사회의 협동을 실질적으로 방해한다.

70:8.14 (793.6) 사회에서 여러 계급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으니까, 진보하는 문명에서 다음과 같은 생물학적 · 지적 · 영적 자원의 영리한 조종을 통해서, 계급은 사람이 진화로 말소할 때까지 존속할 것이다:

70:8.15 (793.7) 1. 종족 혈통의 생물학적 혁신 — 열등한 인간 혈통을 골라서 없앤다. 이것은 필사자의 많은 불평등을 없애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70:8.16 (793.8) 2. 그런 생물학적 개량으로 생겨나는 증가된 두뇌력을 교육으로 훈련한다.

70:8.17 (793.9) 3. 필사자가 친척이요 형제라는 느낌을 종교적으로 깨우친다.

70:8.18 (793.10)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미래에 아득하게 천년이 허다하게 지나야 그 참된 열매를 얻을 것이다. 하지만 문화의 진보를 가속(加速)하는 이러한 요인을 총명하게, 현명하게, 참을성 있게 조종함으로써, 많은 사회적 개선이 즉시 생길 것이다. 종교는 혼란으로부터 문명을 들어올리는 강력한 지렛대이지만, 건전한 정상 유전(遺傳)에 단단히 기초를 둔, 건전한 정상 지성의 지레 받침이 없이 힘을 쓸 수 없다.

9. 인간의 권리

70:9.1 (793.11) 자연은 사람에게 아무 권리를 주지 않는다. 단지 목숨과 그 목숨을 이을 세상을 준다. 자연은 살 권리조차 주지 않는다. 무장하지 않은 사람이 배고픈 호랑이를 원시림에서 만났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가 생각하면 이를 짐작할 것이다. 사회가 사람에게 주는 첫째 선물은 안전이다.

70:9.2 (793.12) 차츰차츰 사회는 권리를 주장했고, 오늘날 이 권리는 다음과 같다:

- 70:9.3 (793.13) 1. 식량 공급의 보장.
- 70:9.4 (793.14) 2. 군사적 방어 — 준비를 통해 얻는 안전.
- 70:9.5 (793.15) 3. 내부 평화의 보존 — 개인에 대한 폭력과 사회의 무질서를 방지하는 것.
- 70:9.6 (794.1) 4. 성의 통제 — 결혼, 가족 제도.
- 70:9.7 (794.2) 5. 재산 — 소유할 권리.
- 70:9.8 (794.3) 6. 개인 및 집단 경쟁의 육성.
- 70:9.9 (794.4) 7. 젊은이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준비.
- 70:9.10 (794.5) 8. 무역과 상업의 촉진 — 산업의 발전.
- 70:9.11 (794.6) 9. 노동 조건과 보상의 개선.
- 70:9.12 (794.7) 10. 영적 동기를 얻어 이 모든 다른 사회 활동을 고상하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종교 관습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70:9.13 (794.8) 권리가 기원을 알 수 없이 오래 되었을 때, 이를 흔히 자연권이라 부른다. 그러나 인간의 권리는 정말로 자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며, 전부 사회적이다. 이 권리는 상대적이고 늘 변하고 있으며, 경기 규칙에 불과하다 — 늘 바뀌는 인간의 경쟁 현상을 다스리는, 인정된 여러 관계를 조정한 것이다.

70:9.14 (794.9) 어느 시대에 권리로 여길 수 있는 것은 다른 시대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다수의 장애자와 퇴화된 자가 살아남은 것은 그들이 그렇게 20세기 문명을 거추장스럽게 할 어떤 자연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당대의 사회, 곧 도덕 관습이 그렇게 선포하기 때문이다.

70:9.15 (794.10) 인간의 권리 중에 거의 아무것도 **유럽**의 중세에는 인정되지 않았다. 그때는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속했고, 권리는 국가나 교회가 허락한 특권이나 은혜였다. 이 잘못에 대한 저항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믿음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똑같이 잘못되었다.

70:9.16 (794.11) 약하고 열등한 자는 언제나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였다. 그들은 국가가 강하고 우수한 자에게 그들의 요구를 채워주고 그 밖에 결점을 회복하도록 강요해야 한다고 언제나 주장했는데, 이런 결점은 아주 빈번히 바로 그들의 무관심과 게으름에서 자연히 생긴 결과이다.

70:9.17 (794.12) 그러나 이 평등의 이상(理想)은 문명의 소산이다. 자연 속에 평등은 발견되지 않는다. 문화 자체도 문화를 받아들일 사람의 바로 그 능력이 다른 것은 사람이 평등하지 않게 타고난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 자연스러운 평등이라 생각되는 것을 갑자기 비진화 방법으로 실현하는 것은 문명화된 사람을 원시 시대의 투박한 관습으로 재빨리 되돌려 보낼 것이다. 사회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권리를 제공할 수 없지만, 각자의 다른 권리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관리할 것을 약속할 수 있다. 자연인에게 자아 유지를 추구하고, 자아 존속에 참여하고, 한편 동시에 어느 정도 자아 욕구의 충족을 즐기는 공평하고 평화로운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사회의 일이요 임무이며, 자아에 관한 이 세 가지는 모두, 인간의 행복의 총합이다.

10. 응보의 진화

70:10.1 (794.13) 자연이 응보를 베푼다는 것은 사람이 만든 이론이며, 현실이 아니다. 자연 속에서, 응보는 순전히 이론이요, 전부 허구(虛構)이다. 자연은 오직 한 가지 응보를 마련해 준다 — 결과는 불가피하게 원인을 쫓는다.

70:10.2 (794.14) 사람이 파악하는 응보는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찾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점진적 진화의 문제였다. 응보 개념은 영이 부여한 지성을 구성할지 모르지만, 응보 개념은 완전히 발육되어 공간 세계로 솟아나지 않는다.

70:10.3 (794.15) 원시인은 모든 현상이 한 인격자가 저지른 것이라 생각했다. 누가 죽었을 경우에, 야만인은 무엇이 그를 죽였는가가 아니라, 누가 죽였는가 물었다. 따라서 사고로 사람을 죽인 것은 인정되지 않았고, 죄를 벌할 때 범죄자의 동기는 통째로 무시되었다. 판결은 입은 손해에 따라서 정해졌다.

70:10.4 (795.1) 가장 초기의 원시 사회에서 여론은 직접 작용했고, 법을 담당하는 관리가 필요 없었다. 원시인의 인생에는 사생활이 없었다. 이웃이 한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졌다. 따라서 이웃이 사사로운 일을 엿보는 권리가 생긴다. 집단 전체가 각 개인의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통제해야 한다는 이론에 근거를 두고 사회가 규제되었다.

70:10.5 (795.2) 사람들은 귀신이 주술사와 사제들을 통해서 응보를 베푼다고 아주 일찍부터 믿었다. 이것이 이 계급을 최초로 범죄를 탐지하고 율법을 시행하는 자로 만들었다. 범죄를 찾아내려고 그들이 초기에 쓴 방법은 독물 · 불 · 고통으로 시련을 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야만스러운 시련은 서투른 중재 기술에 불과했다. 이런 시련이 논쟁을 반드시 공정하게 해결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독물을 주었을 때, 피고가 게워 버리면 무죄였다.

70:10.6 (795.3) 구약은 이 혹독한 시련 중에 하나, 결혼 생활의 죄에 대한 시험을 기록한다. 한 남자가 그의 아내가 정절을 지키지 않았다고 의심하면, 아내를 사제에게 데리고 가서 그가 의심하는 바를 이야기했고, 그 뒤에 사제는 거룩한 물과 성전 마루에서 쓸어모은 것으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준비하곤 했다. 위협하는 저주를 포함하여 마땅한 의식을 치른 뒤에, 고발당한 아내는 그 더러운 약을 마시라고 강요 받았다. 아내에게 죄가 있으면, “저주를 일으키는 그 물이 그 여자에게 들어가서 쓰게 될 것이며, 그 여자의 배가 붓고 허벅지는 썩을지라. 그리고 민족 사이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어쩌다가 어떤 여자가 이 더러운 물 한 모금을 쪽 들이키고 몸이 아픈 징후를 보이지 않으면, 그 여자는 시샘하는 남편이 고소한 죄목에서 풀려났다.

70:10.7 (795.4) 진화하는 거의 모든 부족이 범죄를 찾아내는 이 지독한 방법을 언젠가 실행한 적이 있다. 결투는 혹독한 시련으로 죄를 정하는 재판이 현대까지 살아남은 것이다.

70:10.8 (795.5) 3천 년 전에 **히브리인**과 기타 절반 문명화된 부족들이, 응보를 시행하는 그런 원시 방법을 쓴 것에 놀라서는 안 된다. 그러나 생각 있는 사람들이, 성스러운 기록을 수집한 페이지 안에 그러한 미개

상태의 유물을 남겨두려 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의심되는 불륜(不倫)을 찾아내고 판결하는 일에 관하여, 어떤 신성한 존재도 그렇게 부당한 지침을 필사 인간에게 결코 준 적이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

70:10.9 (795.6) 사회는 일찍부터 눈에는 눈, 목숨에는 목숨으로, 원수를 갚는 태도를 채택하였다. 진화하는 부족들은 모두 피를 갚는 이 권리를 인정했다. 복수(復讐)는 원시 생활의 목표가 되었지만, 종교는 그 뒤로 이 초기의 부족 풍습을 크게 고쳤다. 계시된 종교를 가르치는 선생들은 언제나 선포했다, “‘복수는 나의 일이라’ 주가 말씀하시니라.” 초기 시절에 복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불문율의 핑계로 행해지는 오늘날의 살인과 아주 다르지 않았다.

70:10.10 (795.7) 자살은 흔한 형태의 복수였다. 사람이 살아서 복수할 수 없다면, 귀신으로서 돌아와서 적에게 노여움을 퍼부을 수 있다는 믿음을 품고 죽었다. 이 믿음이 아주 널리 퍼졌으니까, 적의 문간에서 자살한다는 위협은 보통, 적을 항복시키는 데 넉넉했다. 원시인은 생명을 그다지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하찮은 일에 자살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달라마시아** 사람들의 가르침은 이 관습을 크게 줄였으며, 최근에는 여가 · 편안 · 종교 · 철학이 합쳐서 인생을 더 즐겁고 바람직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단식 투쟁은 이 옛 시절의 복수 방법의 현대판이다.

70:10.11 (796.1) 가장 초기 형태의 진보된 부족 율법 중의 하나는 피의 복수를 하나의 부족 일로 떠맡는 것과 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설명하기 야릇하지만, 그때에도 남자는 값을 충분히 치르고 아내를 샀다면, 벌을 받지 않고 아내를 죽일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에스키모**는 범죄에 대한 벌을, 살인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가족이 선포하고 시행하라고 말긴다.

70:10.12 (796.2) 또 한 가지 진보는 금기(禁忌) 위반에 대하여 벌금을 물게 하는 것, 벌칙 조항이었다. 이 벌금은 처음으로 공공 수익이었다. “피의 값”을 치르는 관습은 또한 피로 갚는 복수의 대안(代案)으로서 유행하였다. 그러한 손해는 보통 여자나 가축으로 물었다. 실제로 벌금, 돈으로 보상하는 것이 범죄에 대한 벌로서 인정을 받기까지 오랜 세월이 흘렀다. 형벌 관념이 본질적으로 보상이었으니까, 사람의 목숨을 포함하여 모든 것에, 결국 값이 매겨지게 되었고, 그 값을 손해로서 치를 수 있었다. **히브리인**은 피 값 치르는 관습을 처음으로 폐지하였다. **모세**는 그들이 “사람 죽인 죄를 지은 살인자의 목숨 대신에 아무 배상을 받지 말라,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할지니라”하고 가르쳤다.

70:10.13 (796.3) 이처럼 처음에는 가족이, 다음에는 씨족이, 나중에는 그 부족이 응보를 시행하였다. 참된 응보의 관리는 원수 갚는 일을 개인과 친척 집단으로부터 빼앗아서, 사회 집단, 곧 국가의 손에 넘겨주는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70:10.14 (796.4) 산 채로 태워 죽이는 벌은 한때 보통 관습이었다. **하무라비**와 **모세**를 포함해서, 고대의 많은 통치자가 이 관습을 인정하였고, **모세**는 많은 범죄, 특히 심각한 성적(性的) 성질을 가진 범죄는 화형에 처함으로 벌을 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만일 “제사장”이나 다른 유지의 “딸”이 공공 창녀가 되면, “그 여자를 불에 태워 죽이는” 것이 **히브리인**의 관습이었다.

70:10.15 (796.5) 반역 — 자기 부족의 동료를 “팔아 넘기거나” 배반하는 것 — 은 처음으로 죽을 죄였다. 가축을 훔치는 것은 보편적으로 즉시 죽는 벌을 받았고, 최근에도 말을 훔치는 것은 비슷하게 벌을 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벌의 무거움은 벌의 확실성과 신속성만큼 가치 있는 범죄 억제책이 아니라는 것이 발견되었다.

70:10.16 (796.6) 사회가 범죄를 벌하지 못할 때, 집단의 분개심은 보통 사적(私的) 제재로 죽이는 수단으로서 나타난다. 피신처 조항은 갑작스러운 이런 집단의 분노를 피하는 수단이었다. 사적 제재로 죽이기와 결투(決鬪)는 개인이 사사롭게 시정(是正)하는 일을 국가에게 넘겨주기 싫어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11. 법과 법정

70:11.1 (796.7) 새벽에 언제 밤에서 낮으로 이어지는가를 정확히 가리키는 것만큼, 도덕 관습과 법을 뚜렷이 구분하기가 힘들다. 도덕 관습은 형성 과정에 있는 법 및 경찰의 규제이다. 오랫동안 확립되었을 때, 규명되지 않은 도덕 관습은 엄밀한 법, 분명한 규칙, 잘 규명된 사회 관습으로 구체화되는 경향이 있다.

70:11.2 (796.8) 법은 반드시 처음에 부정적이고 무엇을 하지 말라 한다. 진보하는 문명에서는 법이 더욱 적극성을 띠고 무엇을 지시한다. 초기의 사회는 부정적(否定的)으로 작용했으며,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희는 죽이지 말라”는 명령을 내림으로 개인에게 살 권리를 주었다. 개인에게 주는 모든 권한이나 자유는 모든 다른 사람의 자유를 단축시키며, 금기, 곧 원시 율법이 이 일을 해냈다. 금기라는 관념 전체가 본래부터 부정적인데, 이는 원시 사회가 완전히 무엇을 막으려고 조직되었고, 초기에 응보의 시행은 금기를 집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초에 이 법들은, 후일의 **히브리인**이 보여

주었다시피, 오직 동료 부족 사람들에게 적용되었다. **히브리인**은 이방인을 다루는 경우에 다른 윤리 규칙을 가지고 있었다.

70:11.3 (797.1) 증언을 더 진실하게 만들려는 노력으로, 맹세는 **달라마시아** 시절에 생겨났다. 그러한 맹세는 자신에게 저주를 선언하는 것이었다. 이전에는 아무도 자기가 태어난 집단에 불리하게 증언하려 하지 않았다.

70:11.4 (797.2) 범죄는 부족의 도덕 관습을 깨뜨리는 것이었고, 죄는 귀신이 인가한 금기를 어기는 것이었다. 범죄와 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랫동안 혼란이 있었다.

70:11.5 (797.3) 사람은 이기심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금기를 만들었고, 사회는 이를 전통적 관습으로 인가하였으며, 한편 종교는 관습을 성스럽게 도덕법으로 만들었다. 이처럼 세 가지 모두가 인간의 생활을 더 안전하고 신성하게 만드는 데 협력하였다. 권리가 종교의 인가를 받지 않았더라면, 초기 시절에 사회는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옛날 사람들은 모두, 신들이 선조에게 그들의 오래 된 법, 금기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70:11.6 (797.4) 율법은 오래 된 인간 체험, 구체화되고 공인된 여론이 법전으로 기록된 것이다. 도덕 관습은 축적된 체험이었고, 이것을 토대로 나중에 유력한 지식인들이 성문화된 법을 작성했다. 고대의 재판관은 아무 법이 없었다. 판결을 내릴 때, 그는 다만 “이것이 관습이다”하고 말했다.

70:11.7 (797.5) 법정 판결에서 선례를 언급하는 것은 재판관이 성문화(成文化)된 법을 변하는 사회 조건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나타낸다. 이것은 전통이 연속된다는 감명을 주면서, 변하는 사회 조건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적응하는 길을 마련해 준다.

70:11.8 (797.6) 재산에 관한 투쟁은 여러 방법으로 처리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 70:11.9 (797.7) 1. 싸움에 걸린 재산을 없애 버린다.
- 70:11.10 (797.8) 2. 무력으로 — 논쟁하는 자들은 싸움으로 해결했다.
- 70:11.11 (797.9) 3. 중재로 — 제삼자가 결정했다.
- 70:11.12 (797.10) 4. 장로들에게 상소함으로 — 나중에는 법정에 상소했다.

70:11.13 (797.11) 초기의 법정은 주먹 싸움으로 판결했다. 판사는 단지 심판이나 중재인이었다. 그들은 인가된 규칙에 따라서 싸움이 진행되도록 처리했다. 법정에서 격투에 들어갈 때, 각 편은 다른 편에게 진 뒤에 그 비용과 벌금을 물려고 재판관에게 보증금을 냈다. “힘이 아직도 윌었다.” 후일에는, 말싸움이 주먹 싸움을 대신하였다.

70:11.14 (797.12) 원시적 응보 관념 전체가 공정을 찾기보다 논쟁을 해결하고, 이처럼 공중의 무질서와 개인의 폭력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원시인은 지금 불공평하다고 여길 것을 그다지 분개하지 않았다. 권력을 가진 자는 권력을 이기적으로 쓸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런데도 어떤 문명의 지위는 그 법정이 얼마나 철저하고 공평한가, 그 판사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재판하는가에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결정되는가 한다.

12. 국가 권한의 분배

70:12.1 (797.13) 정부의 진화에서 큰 싸움은 권력의 집중과 관계되었다. 잘 조정된 행정부 · 입법부 · 사법부 사이에 권력의 적당한 균형이 유지되었을 때, 대의 정치 종류의 국가 정부가 사람 사는 세계에서

진화 민족들을 최선으로 규제한다는 것을 우주 행정가들은 경험으로 배웠다.

70:12.2 (798.1) 원시의 권한은 힘, 육체의 힘에 바탕을 두었지만, 이상적 정부는 대의 정치 체계이며, 거기서 능력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 그러나 미개한 시절에는 온통 전쟁이 너무 많아서 대의 정치가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없었다. 권한의 분리와 지휘의 통일 사이에 있었던 오랜 투쟁에서, 독재자가 이겼다. 원시 장로 회의가 초기에 가졌던 분산된 권력은 차츰, 절대 군주의 몸에 집중되었다. 진짜 임금들이 나타난 뒤에, 장로의 집단은 준입법 및 사법(司法)에 관하여 자문하는 단체로서 지속되었다. 후일에 동등한 지위를 가진 입법 기관이 나타났고, 결국에는 판결하는 최고 법정이 입법 기관과 따로 확립되었다.

70:12.3 (798.2) 임금은 도덕 관습, 곧 최초의 법 또는 불문율의 집행자였다. 나중에 임금은 제정된 법령, 곧 구체화된 여론을 집행했다. 인민 집회가 여론의 표현으로서, 늦게 등장했어도 사회의 큰 진보를 표시하였다.

70:12.4 (798.3) 초기의 임금은 도덕 관습 — 전통이나 여론 — 에 크게 제한을 받았다. 최근에 어떤 **유란시아** 국가들은 이 도덕 관습을 성문화하여 통치를 위한 근거 자료로 만들었다.

70:12.5 (798.4) **유란시아** 필사자들은 자유를 가질 자격이 있고, 정부 체계를 만들어야 하며, 헌법, 또는 국가 권한과 행정 절차에 관한 기타 헌장을 채택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나서, 가장 유능하고 자격 있는 동료들 최고 집행자로 뽑아야 한다. 입법부에 있는 대표들을 위해서, 그러한 신성한 책임을 완수하도록, 지능과 도덕 면에서 자격 있는 자들만 뽑아야 한다. 고등 법정과 최고 법정의 판사 경우에, 오로지

타고난 능력을 부여 받고 충만한 체험으로 지혜롭게 된 자들만 선출해야 한다.

70:12.6 (798.5) 사람들이 자유를 유지하고 싶으면, 자유 헌장을 고른 뒤에, 다음 사항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헌장을 지혜롭고 총명하고 두려움 없이 해석해야 한다:

- 70:12.7 (798.6) 1. 행정부나 입법부가 부당하게 권력을 강탈하는 것.
- 70:12.8 (798.7) 2. 무지하고 미신을 믿는 선동자들의 술수.
- 70:12.9 (798.8) 3. 과학적 진보의 지연.
- 70:12.10 (798.9) 4. 평범이 지배하는 막다른 골목.
- 70:12.11 (798.10) 5. 사악한 소수의 지배.
- 70:12.12 (798.11) 6. 야심 있고 머리 좋은, 독재를 꿈꾸는 자를 통제하는 것.
- 70:12.13 (798.12) 7. 공포가 일으키는 비참한 혼란.
- 70:12.14 (798.13) 8. 양심 없는 자들이 착취하는 것.
- 70:12.15 (798.14) 9. 국가가 세금으로 시민을 노예로 만드는 것.
- 70:12.16 (798.15) 10. 사회 및 경제적 공평을 이루지 못하는 것.
- 70:12.17 (798.16) 11. 교회와 국가의 통합.
- 70:12.18 (798.17) 12. 개인의 자유를 잃는 것.

70:12.19 (798.18) 이것들이 진화하는 세계에서 대의 정치라는 엔진을 다스리는 장치로서 작용하는 법정, 헌법에 따른 법정의 목적이요 목표이다.

70:12.20 (799.1) **유란시아**에서 정부를 완전하게 만들려는 인류의 투쟁은, 행정의 경로를 완전하게 만들고, 그 경로를 늘 변하는 시대의 요구에 적응하며, 정부 안에서 권력을 더 균형되게 분산시키고, 다음에 참으로 지혜로운 행정 지도자들을 뽑는 것과 상관이 있다. 신성하고 이상적

형태의 정부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은 계시될 수 없고, 시공 우주에서 두루, 각 행성의 남녀가 천천히 힘들여 발견해야 한다.

70:12.21 (799.2) **[네바돈의 한 멜기세덱이 발표했다.]**

[76]: ^{70:1.15} **모세가 여호와**의 명으로 **미디안** 족을 쳤다는 이야기 (민수기 31장).
